



정교회 주보



성 필라레토스 자선가

루가 제 13주일

성 스테파노 수사고백자

제 6조, 조과복음 1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주일 입당송 / 14, A 42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성당 찬양송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사도경 : 에페소 2:4~10 / 봉독서 310

•복음경 : 루가 18:18~27 / 131, B 8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필라레토스 자선가

우리 교회에서 12월 1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필라레토스는 모든 미덕, 특히 덕의 실천의 모범이었습니다. 경건한 부모인 게오르기오와 안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테오세보란 여인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요한이었고, 두 딸들은 이파티아와 에반티아였습니다. 필라레토스 성인의 직업은 농부로, 자신이 수확한 소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배부르게 해주었고, 헐벗은 사람을 만나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라레토스 성인이 매우 가난해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라레토스 성인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하거나 저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250개의 벌통뿐이었지만, 이것들은 많은 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그들을 벌통으로 데려가서 꿀을 배부르게 먹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꿀을 수확할 때

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꿀을 사용했습니다. 성 필라레토스는 양봉업자들의 수호성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할 바 없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리니 왕비의 아들인 콘스탄티노스가 성인의 손녀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788년 11월에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성 타라시오스(2월25일 축일)께서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황제는 필라레토스 성인에게 한 지역을 관리하는 고위직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인은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더욱 풍성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인은 안식하기 전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절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교회의 성찬예배와 다른 예배들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천사들의 기쁨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루가15:10)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 기쁨이 하늘과 땅에 깃들게 됩니다.

우리도 천사들에게 기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도 회개는 우리를 천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처럼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도전이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우리 삶이 천사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어디에 얽매인 강직증으로는, 광신적인 것으로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로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일치와 사랑에 대한 아주 작은 일에 관여할까요? 하나의 작은 욕망과 나약함을 끊으려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서 엄격하고 강하게 다른 모든 의견에 대해 관여하여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에, 우리의 집에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집”을 어떻게 올바르게 고칠 수 있나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문제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가정에 속상한 일들과 스트레스, 우울함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가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정교육에 대해 자신이 고집하는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적대적으로 다투려고 하면 우리 내면에, 주변에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천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천사들처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실천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적 사업



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설교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마태오4:17)

‘나는 고백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100번 고백했어도, 회개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실천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한 예로 자캐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애틀로스의 성 코즈마스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의 것을 훔치고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 네 갑절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을 모함했는데, SNS에서 익명으로 남을 욕했는데, 이웃에게 또 직장에서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회개는 천사들의, 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신자들의 교회라면 우리는 또한 투쟁하고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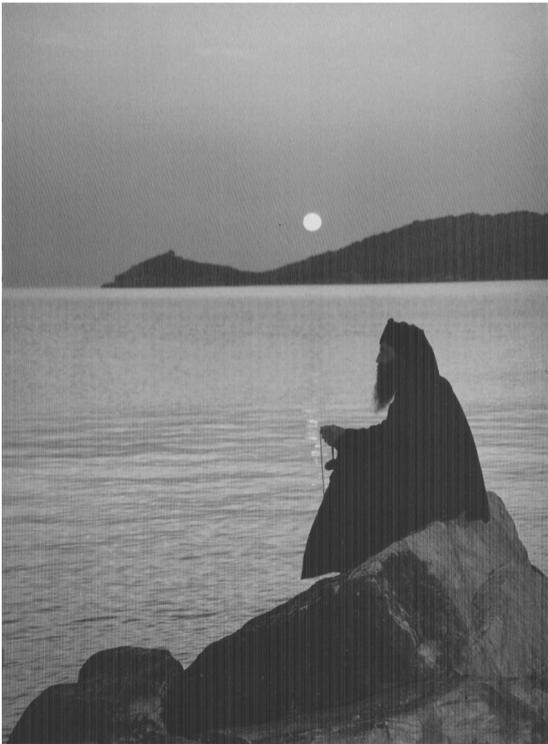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해변에서 이루어진 고백성사(2) (조지 흐리스토틀로스 신부)

그는 우리들 앞에 바르게 서서 조금도 머뭇거리림이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배가 고팠으며 일자리도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남모르게 하느님을 찾는 마음과 함께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우리는 그 지역의 사제를 찾아가서 고백성사를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으렵니다. 신부님께서 절 위해 고백성사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회의 이름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지,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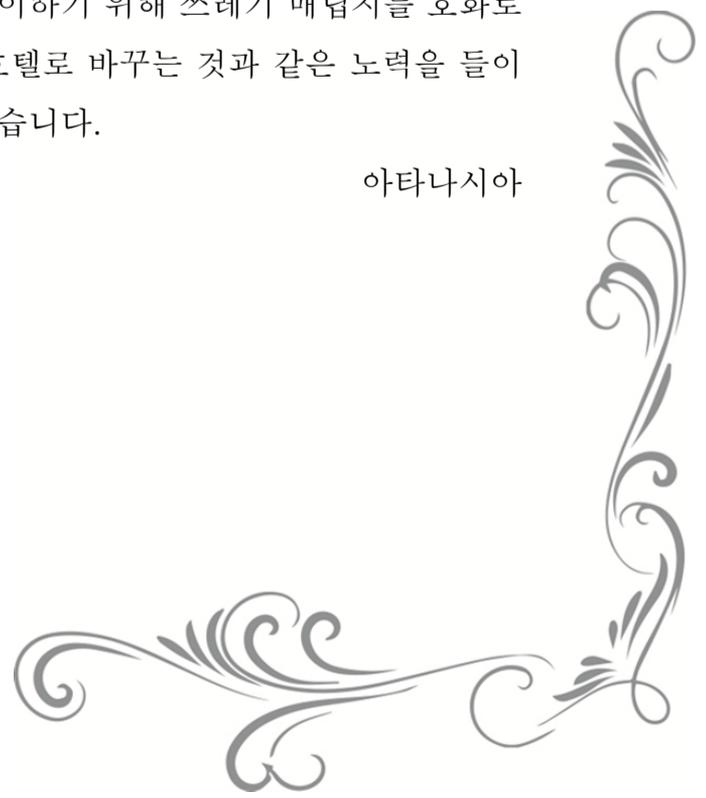


남을 크게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이토록 오랜 시간, 이 늦은 밤에 절 위해 이곳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절 위해. 그리고 절 박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하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영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까지 가 닿는 매우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고백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호화로운 오성급 호텔로 바꾸는 것과 같은 노력을 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안드레아 수도원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11월 30일(화)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안드레아 사도의 중보로 영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수도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 감사의 편지

지난 여름 큰 화재로 그리스의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할키다 지역의 성당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정교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10월 22일 10,663,270원(7,674 EUR)을 할키다 대교구에 보냈습니다. 이에 크리스스토모스 할키다 대주교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큰 화재로 아름답고 푸르른 에비아 북쪽 지역이 전부 재가 되었고, 성당도 전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대천사들 성당’ 복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중보로 여러분들의 나라의 모든 지역에 정교회의 증언이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와 함께 영수증을 동봉해 보내주셨습니다.

■ 성 니콜라스 축일 시작

예년처럼 올해도 오늘 11월 28일 주일부터 성 니콜라스 성화와 성 유해를 성당 중앙에 놓으면서 성 니콜라스 대성당 축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의 수호 성인 축일에 동참합시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18일(목)에 마리아 이소현 교우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99세로 크리스티나 김미순 교우의 어머니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 WCC 11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동행 6차 모임

WCC 11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동행 6차 모임이 11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내년 독일에서 열릴 WCC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성당에서 예배와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일치 운동에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간예식



11월 30일(화) 성 안드레아 첫 사도
12월 2일(목) 성 뵘르피리오스 수도사제,
성 하바꾹 예언자, 성 미로뻬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